

“우리 일상과 직접적 연결 흥미로웠다”

‘옥자’ 봉준호 감독, 현재 세계를 추동하는 시스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방위적으로 비판

“옥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자본주의가 점점 더 놀라운, 고도의 경지로 발전하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는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흐름 안으로 동물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봉준호(48) 감독은 신작 ‘옥자’를 이같이 설명했다. 영화는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슈퍼돼지에 관한 이야기다.

초국적 기업 미란도 코퍼레이션은 이 동물을 세계 26개국 축산업자에게 팔기 키우게 한다.

미지(안서현)·희봉(변희봉)과 함께 한국의 산 속에서 살고 있는 옥지도 미란도의 작품 중 하나다. 미란도의 CEO 루시(틸다 스윈턴)는 슈퍼돼지를 가공해 식품으로 팔기 직전, 홍보의 일환으로 가장 아름답게 자란 슈퍼돼지를 미국 뉴욕에서 공개하기로 한다. 옥자가 미란도 직원들에 의해 납치당하자 미지는 옥자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직접 뉴욕으로 향한다.

“안개가 낀 날이었어요. 이수교차로를 지나고 있는데, 고가도로 밑에 길 정도도 큰, 그러면서 내성적인 동물을 본 거죠. 시무룩한 얼굴이었는데 누가 괴롭혀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한 겁니다.”

크고 조금은 어울리게 생긴 동물의 이야기로 봉 감독은 세계를 이야기한다. 세계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다.

그는 옥자와 미지의 여정을 통해 현재 이 세계를 추동하는 시스템을 정치·경

제·사회·문화 전방위적으로 비판한다. 그 안에 담긴 한 단어는 역시 ‘생명’이다.

“오늘날의 도축 시스템, 이 가공할 만한 시스템이 인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동물 입장에서 보면 최신식 홀로코스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봉 감독은 ‘옥자’의 의미에 대해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흥미로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애완동물을 안고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를 사잖아요. 아주 재밌는 상황인 거죠(웃음)”

‘옥자’가 봉 감독의 전작들과 비교되는 건 명쾌함 때문이다. ‘살인의 추억’(2003) ‘괴물’(2006) ‘바다’(2009) ‘설국열차’(2013) 등의 연관검색어는 언제나 ‘해석’이었다. ‘옥자’ 또한 치밀한 각본이 돋보이는 작품이지만, 전작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주제의식을 명징하게 드러낸다.

봉 감독 또한 “명쾌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기적과 같은 동물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야기는 앞서 어떤 영화도 다룬 적이 없다. 만약 내가 한국전쟁을 영화화한다면 레이어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모호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옥자’는 처음 만들어진 이야기다. 1번 타자로서 명쾌한 스텝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어떤 이미지가 있었으면 그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가다가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초반에는 그저 충동에 따라 이러저러 휘날릴 뿐이에요. 전 주제나 메시지를 위해 영화를 찍는 게 아닙니다. 전 결국 엔터테인먼트를 찾고 있어요. ‘옥자’는 이 메시지를 담을 수밖에 없는 소재였던 겁니다.”

‘옥자’는 개봉 전부터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경쟁부문에 진출한 칸국제영화제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를 영화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벌어진 이른바 ‘넷플릭스 논쟁’에 휩싸였다.

국내 개봉을 앞두고는 국내 극장들과 상

영 방식을 놓고 ‘극장·온라인 동시 상영 논란’이 있었다. 영화가 작은 극장 위주로 개봉을 확정하자 ‘옥자’에 밀려 상영 시간이 줄어든 독립영화계의 반감을 샀다.

봉 감독은 “마치 재개봉을 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아직 이 영화를 체험한 사람보다는 논의한 사람이 많아요. 이제 오감으로 체험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겠죠. 사실 이 영화가 담은 메시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이 사탕스러운 돼지를 따라가 보시길 바랄 뿐입니다.”

/뉴시스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청풍기 전국대회 활약 펼쳐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 고창군 소속 여자 유도부 선수들이 선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임정수(-78kg), 조아라(-52kg) 선수가 개인전 동메달,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임정수 선수는 올해 4월 ‘2017 전국삼일유도최강전’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 가장 많이 활약한 선수로 올해도 기대한 바와 같이 충분한 기량을 한껏 뽐내고 있다.

조아라 선수는 최근 부상으로 재활치료를 했으나 이번 대회를 통해 부상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꾸준한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단체전에서는 선수들이 합심해 단결된 모습으로 실력을 발휘하며 3위의 값진 성과를 거뒀다.

홍기문 경기지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에 매진하고,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진안군청 역도팀 유동주, 전국대회 금메달 3개 획득

진안군청 역도팀 유동주(24)선수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 완도군 농어문화체육센터 열린 제89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에서 유동주 선수는 85kg급에 출전해 인상(165kg), 용상(200kg), 합계(365kg)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인상 1차시기에 출전한 유동주 선수는 160kg에 실패 했지만 2차 시기에 160kg, 3차 시기에 165kg을 들어올렸다. 용상에서는 1차시기에 195kg을 들어올리고 2차 시기에 실패 했지만 3차시기에 200kg을 들어 올려 합계 365kg으로 2위인 보성군청의 박해주 선수를 15kg 차이로 제쳤다.

/진안=우태만기자



검찰, ‘대마 흡연’ 빅뱅 탑 징역형 구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검찰이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그릇된 생각에 잘못된 판단으로 풀이할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인생 가장 최악의 순간으로 빠져라게 후회하고 있다”고 심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7월20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재판 끝무렵 최후변론에서 “저는 수년간 장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신 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호르몬진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풀이할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은 제 인생에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며 “정말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제 자신이 부끄럽다”며 “어떤 처벌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겠다.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감사하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최씨는 이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그를 빅뱅으로 데뷔해 10년간 가수 및 배우로 국내외 해외에서 성실히 활동하며 재능을 인정 받아왔다”며 “군 입대 전 우발적 범행으로 병역상 불이익은 물론 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

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감내하기 어려운 과도한 불이익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어린 친구가 한순간 잘못으로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입을 질끈 다문 채 피고인 석에서 미동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고 어두운 낮빛에 착잡한 표정을 보였다.

재판이 끝난 후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너무 큰 실수를 했고 너무 큰 실망을 드린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 죄송하다”며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공범 A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A씨와 함께 대마엑사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며 사마문을 냉담하고 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